

연구논문

재난 상황에서의 이슈 선점과 정당 지지: 코로나19 발생 전·후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송진미**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조사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가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와 투표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코로나19는 재난 이슈로서 대응과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슈 소유(issue ownership) 관점에서 정당의 공약,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해결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무당파 유권자들이 코로나19의 정부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정당 지지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12월과 발생 이후 선거기간이었던 3~4월 사이에 동일 응답자들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 정당 지지와 투표의향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 태도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피고, 이슈소유논의를 적용해 이를 전망적 이슈투표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패널데이터, 합의 이슈, 재난

* 본 논문은 2020년 10월 30~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주최로 진행된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총선을 통해 본 한국선거의 변화와 정책선거’(한국정당학회) 패널(2020년 10월 20일 진행 및 영상 녹화)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jmsong08@gmail.com).

I. 서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키워드를 나열해 본다면 코로나19가 상위권에 들 것이다. 1월 21일에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총선 당일까지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으며,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인 4월 14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564명이었다. 투표장에서는 유권자들 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투표장 입장 전 체온을 재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 도장을 찍는 낯선 모습이 펼쳐졌다. 악수를 청하며 명함을 건네는 후보들과 선거유세 차량 소리로 떠들썩했을 거리는 마스크를 쓰고 땀말을 들고 조용히 인사하는 후보들의 모습으로 채워졌다(연합뉴스 2020/04/03; 한국일보 2020/03/21; JTBC 2020/04/02).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는 유권자들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일보에서 3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해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 대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5%에 달했다. 지역경제 상황(86.4%)보다도 이슈 관심도가 높았다.²⁾ 경향신문과 중앙일보가 각각 3월 말과 4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의 조사³⁾에서는 응답자의 24.4%, 중앙일보의 조사⁴⁾에서는 응답자의 21.5%가 총선에서 중요하거나 영향을 주는 이슈로 '코로나19'를 선택했다. 두 조사 모두에서 코로나19가 민생경제 다음으로

1) 이정훈 기자, 연합뉴스, 2020/04/03, '[총선 D-12] 경남 총선 후보 74명 이틀째 조용한 선거운동', 왕태석 기자, 한국일보, 2020/03/21, '코로나19가 바꾼 선거운동 풍속도', 정종문 기자, JTBC, 2020/04/02, "차분한 거리, 뜨거운 온라인 유세 ... '코로나 총선' 풍경"

2) 한국일보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했다. 출처: 양진하 기자, 한국일보, 2020/03/05, "[총선 여론조사] 4·15 총선 최대 이슈는 ... '코로나' 93% '지역경제' 86%"

3) 경향신문은 메트릭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을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일자리 등 민생(44.9%)'이었으며, 코로나19가 그 뒤를 이었다. 출처: 김형규 기자, 경향신문, 2020/03/30, "'코로나19'보다 엄중 ... 44.9%가 '민생'을 최대 이슈로 꼽아"

4) 중앙일보에서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선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21.5%의 응답자가 '코로나19'라고 응답했다. 이는 '일자리 등 민생경제(4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출처: 박해리 기자, 중앙일보, 2020/04/06, '[총선 D-9 여론조사] 총선에 가장 영향 줄 사안, 민생경제 43.1%>코로나 21.5%'.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는 선거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슈로서 선거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이슈가 선거에서 등장하고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정당이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정당을 평가하게 된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여기는 정당에게 상/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회고적 평가를 하거나,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여기고 전망적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다른 재난 위기와 다른 점은 재난 상황의 중심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재난 대응 능력은 앞으로 여당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슈 소유(issue ownership) 논의에 따르면, 정당은 지금까지 보였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정당이 해당 이슈 영역에 대해 집권 당시 보여줬던 성과들은 이슈 성취 능력의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주어진 이슈에 대해 어떤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요구된 목적을 잘 이룰 것이라고 신뢰가 갈 때(Budge & Farlie 1983: 287)” 정당은 이슈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리서치가 선거 2주 전 실시한 여론조사⁵⁾에 따르면, 코로나19가 4~5월 중에 종식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했으며,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10%였다.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8월 이후 하반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44%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며, 동일 질문을 2월과 3월 중순에 질문했을 때보다 응답자들은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⁶⁾ 즉, 상당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코로나19를 고려한 투표가 전망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이슈 투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재난 이슈로 분류하고, 재난 이슈가 선거에서 부각될 때 유권자의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재난 관련 공약과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5) 출처: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ttps://hrcopinon.co.kr>) [코로나19] 4차 조사, 조사기간 2020년 3월 27~30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지역/연령/성별 비례할당추출.

6) 출처: 이동한. 2020년 4월 1일,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리포트(hrcopinon.co.kr/archives/15262)

반응을 분석하고 코로나19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와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슈 소유의 관점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가 여당의 재난 이슈 선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유권자들의 투표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난이 지속되고 있을 때 정부의 재난 상황 대처에 대한 평가가 전망적으로 투표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코로나19와 재난 이슈 선점

재난과 위기는 정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시민들은 위기 상황의 대처 능력 등에 대해 정부를 회고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정부를 지지하며 결집하는 경향이 있다(Bechtel & Hainmueller 2011; Healy & Malhotra 2009). 혹은 반대로 정부에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에이큰과 바텔스(Achen & Bartels 2017)에 따르면, 가뭄과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해 유권자들은 현직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말호트라와 쿠오(Malhotra & Kuo 2008)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에 대해 유권자들이 당파적 편향에 따라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처에 따라 상 또는 벌을 내리는 것이다(Achen & Bartels 2017; Bodet et al. 2016; Malhotra & Kuo 2008). 또는 이러한 재난이 유권자들의 정치 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Bodet et al. 2016). 재난은 정부가 의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재난에 대한 대응을 투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재난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고적 투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체로 연구 대상이 되는 선거들이 재난 발생 이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부의 대응을 보고 회고적으로 상을 내리거나 벌을 주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 역시 재난 이후 선거에서는 재난 예방보다는 구호 활동에 유권자들이 더 큰 보상을 한다고 지적한다(오현주 외 2014; Chen 2013). 하지만 2020년 총선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

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유권자의 정치 태도와의 관계를 회고적 관점에서만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총선이 치러진 2020년 봄, 코로나19의 확산은 전세계적 재난으로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은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했으며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ol et al. 2020; Harell 2020; Merkley et al. 2020). 볼 외(Bol et al. 2020)에 따르면, 국가 봉쇄가 이루어진 직후에 유권자들의 여당 투표 의향은 높아지고, 정부 신뢰와 민주주의 만족도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결집이 아니라, 시민들이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강행한 정부를 지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Bol et al. 2020: 6).

2020년 총선은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현재 진행형인 재난의 한 가운데서 치러졌다. 정부는 선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받았다.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유권자들의 다수는 선거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은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정책 과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를 뽑아야 했다. 즉,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여당의 단기적 이슈 소유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슈 소유는 ‘정책에 대한 평판(Petrocik 1996: 826)’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특정 정당이 특정 이슈에 관해 보여준 정책 성과와 능력,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서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한다. 유권자가 해당 이슈를 정당과 연결했을 때 정당은 이슈를 소유(own)할 수 있다(Ansolabehere & Iyengar 1994; Walgrave & De Swert 2007). 이러한 이슈 소유는 장기간에 형성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특정 이슈를 소유한 정당은 해당 이슈가 중요해질수록 선거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특정 이슈에 대해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가장 잘 해결할(best at handling)’ 것이라고 인정받은 정당은 해당 이슈를 선거에서 부각하는 방식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Budge & Farlie 1983a, 1983b; Green-Pedersen 2007; Petrocik 1996; Stubager 2018). 유리한 이슈는 강조하고 불리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정당들이 이슈 경쟁을 하는 것이다(Petrocik 1996, 2003).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이슈를 잘 다

를 것으로 생각한 유권자들이 투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B'elanger & Meguid 2008; Green & Hobolt 2008; van der Brug 2004).

한편 선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중요하게 부상하기도 하고, 소유가 불분명한 이슈가 중요해지기도 한다. 나아가 다른 정당이 소유하고 있던 이슈의 탈취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슈 소유는 불안정하거나 단기간에 변화할 수도 있다(Bellucci 2006; Damore 2004; Holian 2004). 최근의 이슈 소유 연구들은 이러한 장기적 이슈 소유와 구별되는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이슈 소유가 있으며, 이러한 단기적 이슈 소유가 선거의 결과와 더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tubager 2018). 단기적이거나 불안정한 이슈 소유를 기존 연구들은 ‘이슈를 임대(lease)했다’고 표현하거나(Petrocik 1996), ‘정당 능숙도(party competence)’로 부르기도 했다(Bellucci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단기적 이슈 소유’의 시도를 이슈 선점(先占)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코로나19는 선거 이슈의 관점에서 재난 이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재난 이슈가 제21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비교적 새로운 이슈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재난 발생 이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재난 이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로 의견을 나타낼 후보자는 없을 것이다. 대체로 어떤 정당이나 후보가 재난에 잘 대처해 왔고, 앞으로 잘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후보들은 나름의 대책과 정책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추가 감염을 막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동의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재난 대비 방법이나 피해 복구 정책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재난의 예방과 그 피해의 최소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목표일 것이다. 따라서 재난 이슈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그 방향성에 동의하는 합의 이슈(valence issue)라고 할 수 있다. 합의 이슈와 구분되는 대립 이슈(position issue)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이슈로 유권자들의 선호가 분포(分布)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 이슈와 다르다(Stokes 1963: 383). 합의 이슈에 경제성장이나 평화와 같은 가치가 있다면, 이민정책이나 낙태, 총기규제 등의 정책이 대립 이슈에 해당한다(Adams et al. 2005: 254).

선거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을 때 정당은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립 이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

리두기 강화와 같은 정책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정당은 이러한 대안들이 아닌 ‘재난상황의 극복과 해결’ 혹은 ‘재난의 예방’이란 목표 자체에 초점을 맞춰 경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당 경쟁이 이루어지면 유권자들은 각 정책에 얼마나 찬성하는지에 따라 정당/후보를 선택하지만, 재난상황의 해결 자체를 놓고 경쟁할 경우 유권자들은 해당 목표를 어느 정당이 더 잘 이룰지 평가해 투표할 것이다.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슈이거나 정당 간 이슈 경쟁의 역사가 짧은 경우, 어느 정당이 해당 이슈에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유권자들의 합의 또한 형성되는 시점이므로 합의 이슈인지 대립 이슈인지 미리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슈의 구분은 경험적으로 밝혀 문제이다(Stokes 1963). 선거에서 부각된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약이나 선거캠페인에 제시되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슈와 정당을 연결하는지 분석하고 선거 맥락에 따라 이슈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의 공약과 선거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에서 재난 이슈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를 정당 지지와 투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이슈 태도와 정당 지지

재난 이슈에 대한 태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정당일체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과 선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선거의 결과가 당파심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이 연달아 제기되었다. 코로나19 봉쇄정책에 대한 지지가 수용이 상당 부분 당파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Gadarian et al. 2020; Grossman et al. 2020). 재난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당파심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rown 2010; Marsh & Tilley 2010).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은 유권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원호 2012; 이갑윤 2011; Brody & Page 1972; Miller 1992). 최근 이러한 당파심에 의한 설득의 효과가 약하거나 쉽게 사라진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Bartels 2014; Coppock et al. 2019; Hill et al. 2013; Kalla & Brookman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당파심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성과를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길정아 2020; 오

현주 외 2014).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이러한 당파심의 영향력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권자들은 정당 호감도에 따라 정부의 성과를 다르게 평가하거나(오현주 외 2014), 정치적 사건을 인식하거나 평가할 때도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길정아 2020). 정당일체감은 정치인과 정당 호감도, 이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념 성향, 정부에 대한 평가 등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길정아·하상웅 2019; 김성연 2015; 장승진 2015; 정동준 2016).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상대 정당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길정아 외 2019; 오현주 외 2014). 제21대 총선을 분석한 길정아(2020)의 연구에 따르면,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평가가 정당 간 갈등 수준을 인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정당일체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데, 유권자들은 상대 정당의 위성정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당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대상들을 지지하는 정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게 한다(Campbell et al. 1980: 130-135). 따라서 정당일체감은 이슈 소유를 인식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송진미·박원호 2014). 기존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이슈를 어느 정당이 잘 해결할지 평가할 때도 유권자는 당파심에 따라 선호 정당에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ucci 2006; Kuechler 1991; Stubager & Slothuus, 2013; Wagner & Zeglovits 2014). 스투바거(Stubager 2018)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느 정당이 이슈를 잘 해결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평가할 때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았다. 유권자들이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는지 역시 장·단기적으로 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Pass 1971).

따라서 여당 지지자일수록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이 코로나19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권자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이슈 선점에 근거한 이슈 투표처럼 보이지만, 정당일체감에 따라 유권자가 움직인 것이므로 정당투표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이슈에 근거한 투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당일체감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별로 코로나19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III. 연구모형 및 변수 조작화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정당 지지와 투표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당 지지는 정당에 대한 이슈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정부의 재난 이슈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슈의 영향이 아니라도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야당 지지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본인의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다른 집단에 비해 여당이 선점한 이슈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에 따른 재난 이슈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 모형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슈 선점은 ‘이슈를 어느 정당이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평가되며, 정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해당 이슈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당이 코로나19 이슈 혹은 재난 이슈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측정하고, 이러한 태도가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유권자들의 이슈 평가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슈 선점의 재료가 정당이 보인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정부의 현 대응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는 여당의 코로나19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슈 선점의 직접적 측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현재적 평가를 간접적 측정 방식으로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은 이론적 논의에 따라 민주당의 이슈 선점에 기반을 두고 설계했으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슈 선점 측정의 대안으로 정부의 현재 코로나19 해결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사용했다.

가설 1. 유권자는 민주당의 코로나19 해결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1-1 무당파 유권자는 민주당의 코로나19 해결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1-2 정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에 대한 코로나19 이슈의 영향력이 무당파 유권자들에 비해 작을 것이다.

가설 2. 유권자는 민주당의 코로나19 해결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민주당 투표의향이 높을 것이다.

2-1 무당파 유권자는 민주당의 코로나19 해결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민주당 투표의향이 증가할 것이다.

2-2 정당 지지자는 민주당 투표의향에 대한 코로나19 이슈의 영향력이 무당파 유권자들에 비해 작을 것이다.

연구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KBS에서 실시한 『[KBS-한국리서치] 2020 총선거획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이름과 기관, 조사업체, 조사기관, 각 패널의 샘플 수는 <표 1>과 같다. 조사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동일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차, 4차, 5차, 6차 조사자료를 분석했다. 1차 조사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인 12월 중순에 실시되었으며, 응답자 접촉률은 40.1%, 응답률은 8.1%이다. 이후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4차 조사부터 포함했다. 4차, 5차, 그리고 6차 조사의 패널유지율은 순서대로 77.9%, 77.6%, 77.2%였다.

<표 1> 분석 자료 목록

조사명	조사기관/업체	조사 기간	샘플 수(명)
2020 총선거획 패널조사(1차)	KBS, 한국리서치	2019년 12월 13~19일	1,539
2020 총선거획 패널조사(4차)		2020년 03월 20~23일	1,199
2020 총선거획 패널조사(5차)		2020년 03월 27~30일	1,195
2020 총선거획 패널조사(6차)		2020년 04월 03~06일	1,188

가설 1은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여당 지지와의 관계를 정당일체감을 조절변수로 살펴보는 것이다. 종속변수는 코로나 이후 여당 지지 여부이다. 선거 직전 조사자료인 6차 자료를 활용했으며,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1, 무당파 및 기타정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민주당의 코로나19 해결에 대한

평가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현재적 평가로 측정했으며, 이것이 정당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6차 자료)보다 일주일 전에 조사한 5차 조사자료를 활용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4점)부터 매우 못하고 있다(1점)까지 4점 척도로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는 코로나 이전의 정당 지지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정부 대응 평가와 관계없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민주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무당파에 비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조절변수인 코로나19 이전 정당일체감은 1차 자료를 활용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무당파=0, 민주당 지지=1, 한국당 지지=2, 정의당 지지=3, 기타정당 지지=4로 코딩했다. 변수와 자료를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코로나 이전 정당 지지(1차), 코로나19 정부 대응평가(5차), 선거 직전 정당 지지(6차)이다.

가설 2는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여당 투표와의 관계를 정당일체감을 조절변수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KBS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 예측을 목표로 조사된 것으로 선거 이후에는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 선거 직전 조사한 6차 자료에서 투표의향을 묻는 질문을 활용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 이슈이고 정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1, 미래한국당 외 기타정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했으며 기권과 무응답은 결측치 처리했다. 독립변수인 정부 대응 평가와 조절변수인 1차 정당 지지는 가설1에서 설명한 변수조작화와 같다.

그리고 정당 지지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 성별, 연령, 가구소득, 거주지역, 학력을 통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관심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은 4차 조사에서만 질문했으므로 4차 조사자료를 활용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다음의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응답을 ‘매우 관심이 없다(1점)’부터 ‘매우 관심이 많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코딩했다. 모름과 무응답은 결측치 처리했다. 각 변수의 조작화 방식은 <표 2>와 같으며,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2> 변수 조작화

종속변수	정당 지지(6차)	민주당 지지=1, 무당파 및 다른정당 지지=0
	정당 투표의향(6차)	민주당 투표=1, 다른정당 투표=0
독립변수	코로나19 대응평가(5차)	매우 못하고 있다=1, 대체로 못하고 있다=2, 대체로 잘하고 있다=3, 매우 잘하고 있다=4
	정당 지지(1차)	무당파=0, 민주당 지지=1, 한국당 지지=2, 정의당 지지=3, 기타정당 지지=4
	코로나19 심도(4차)	매우 관심이 없다=1, 별로 관심이 없다=2, 대체로 관심이 없다=3, 매우 관심이 많다=4
통제변수	이념성향(5차)	매우 진보(0점)~매우 보수(10점)
	성별(1차)	남성=1, 여성=0
	연령(1차)	만 연령
	가구소득(1차)	200만 원 미만=1, 200~300만 원 미만=2, 300~500만 원 미만=3, 500~700만 원 미만=4, 700만 원 이상=5
	학력(1차)	고졸 이하=1, 전문대 재학 이상=2
	거주지역(1차)	서울/인천/경기=1, 강원/제주=2, 충청/세종=3, 전라/광주=4, 경상/대구/부산/울산=5

<표 3> 기술통계

(단위: %, 명)

변수	평균/비율	샘플 수(명)
정당 지지(1차)	무당파 23.99 더민주 41.31 한국당 20.92 정의당 6.14 기타정당 7.65	1,530
정당 지지(6차)	무당파 12.73 더민주 47.79 통합당 25.13 정의당 5.77 기타정당 8.57	1,178
정당 투표의향(6차)	더불어시민당 35.78 기타정당 64.22 (미래한국당 28.24 정의당 13.87 열린민주당 9.75)	995
코로나19 대응평가	평균 3.02 표준편차 0.96	1,190
코로나19 관심도	평균 3.56 표준편차 0.645	1,192
이념성향	평균 4.876 표준편차 2.32	1,185
성별	남성 49.19 여성 50.81	1,53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98 200-300만 원 미만 13.37 300-500만 원 미만 33.97 500-700만 원 미만 18.55 700만 원 이상 17.12	1,466
학력	고졸 이하 36.11 전문대 재학 이상 63.89	1,537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 48.93 강원/제주 5 충청/대전/세종 10.85 광주/전라 10.01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5.21	1,539

IV. 분석결과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적 이슈 소유는 지금까지 정당이 해당 이슈에 대해 보여온 성과를 통해 형성되며, 한 번 공고히 만들어지면 잘 바뀌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이슈는 소유가 불분명한 이슈였다. 재난 이슈가 선거 연구에서 주목받은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재난 이슈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재난의 발생과 구호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난 이슈가 부각되었다(박원호·신화용 2014; 오현주 외 2014; 이현우 2015). 하지만 당시 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고⁷⁾ 야당도 특별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재난 이슈가 정부 심판 외의 이슈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이슈 소유의 기반이 되지 않았다. 다른 정당에 비해 특정 정당이 주어진 이슈에 대해 요구된 목적을 잘 이룰 것이라고 유권자들이 신뢰할 때(Budge & Farlie 1983a: 287) 해당 정당은 해당 이슈를 소유할 수 있다.

그 이후로 2020년 총선에서 다시 재난 이슈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재난 이슈는 장기적 이슈 소유 관점에서 아직 우리나라 선거에서 주인이 없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재난 이슈 해결능력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후 진행될 선거의 단기적 이슈 소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총선 이후에 코로나19 외에도 미세먼지와 환경재난 등에 대해 민주당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민주당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재난 이슈를 소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총선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평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재난 이슈가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 외에도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코

7) 내일신문과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내일신문 창간기념 국민정치 의식 및 이상적 리더십 분석(2014)』에 따르면, 1,000명의 응답자 중 52.3%가 대통령이 세월호 사태에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41%, 무응답이 6.7%였다.

로나19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KBS 여론조사 4차 조사에 따르면, 총선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코로나19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1,192명의 응답자 중 93.7%(1,117명)에 달했다. 또한, 총선을 9일 앞두고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8%였으며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19.2%였다. 특별한 유·불리가 없다는 응답은 32.8%, 모름이나 무응답은 11.2%였다.⁸⁾ 코로나19의 영향이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야당보다 약 2배 가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이 앞으로 여당의 코로나19 해결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여당이 이슈 선점에 유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⁹⁾

유권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정당에서도 관련 공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제1순위로 ‘[보건복지, 안전]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이라고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초기대응과 질병 관리체계 강화,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의 개선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참여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10대 공약에서 제1순위로 코로나19 관련 공약을 “[보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선거공보에서도 가장 첫 장에서부터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정치인들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하며 이슈 선점을 시도했다. 더불어

8) 출처: 김효성 기자, 중앙일보, [총선 D-9 여론조사] 재난지원금 ‘취약층만 줘야’ 31.6% ‘현재 적당’ 29.1%. 엠브레인퍼블릭, 조사기간: 4월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유선과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13.7%며 2020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pm 3.1\%$ 이다.

9)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로 한국경제신문에서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한경-입소스 3차 총선 민심 조사]와 뉴시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41.3%, 통합당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8.6%였다. 후자의 경우, 코로나19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당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44.4%, 야당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21.0%, 여야 모두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4.4%였다. 두 여론조사 모두에서 역시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2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여론조사는 4월 6~7일에 이루어졌으며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20.1%, 무선 79.9%)으로 진행되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이 응답했다(출처: ‘코로나지원금 민주당에 긍정적’ 37% vs ‘통합당에 유리’ 7%) 응답률은 14.8%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pm 3.1\%$ 포인트이다. 뉴시스의 여론조사의 경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4월 7~8일 조사를 실시했다(출처: [마지막 여론조사]코로나19 총선 영향... 여당 유리 44.4% vs 야당 유리 21.0%).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빨리 퇴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빨리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¹⁰⁾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던 만큼 방역보다는 코로나19 경제대책에 주목했다. ‘특별재난장학금’이나 코로나 불황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내세우며 코로나19 극복에 목소리를 높였다.¹¹⁾ 주요 정당이 구체적 내용은 달랐지만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¹²⁾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이 여당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5부제, 2주 자가격리 등과 같은 정책들을 비롯해 해외에 국민 수송을 위한 전세기를 띄우거나 매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는데, 코로나19의 감염력과 심각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인 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1점(매우 못하고 있다)부터 4점(매우 잘하고 있다)까지 점수를 매길 때 평균 3.02점(표준편차 0.96)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여론조사 5차 자료로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3점과 4점을 준 응답자는 75.3%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슈 소유 논의에 따르면, 정당이 이전까지 이슈에 대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왔을 때, 다수의 유권자들은 해당 이슈가 선거에서 현저해지면 해당 정당을 선호하게 된다(Budge & Farlie 1983b: 41-42). 이슈 소유는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들의 긍정적 평가는 앞으로 민주당이 재난 이슈를 소유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서 단기적 재난 이슈 경쟁에서 여당이 유리했으며, 재난 이슈를 민주당의 이슈로 가져오는 데 상당 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실제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먼저 지지

10) 김동현 기자, 2020년 4월 11일, 연합뉴스, “[총선 D-4] 민주, 수도권 초접전지 집중유세…‘코로나 치유 최선’”.

11) 김원철, 장나래 기자, 2020년 4월 9일, 한겨레, “여야, 코로나 화력전 … ‘청년층 상처 치유’ ‘대학생 100만원씩’”

12) 이처럼 합의 이슈와 대립 이슈는 이론적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며, 실제 현실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합의 이슈와 대립 이슈는 공약과 선거 캠페인에서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대립 이슈의 묶음이자 목표로서 합의 이슈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스톡스(Stokes 1963)는 합의 이슈 뒤에 대립 이슈가 숨어있다(lurk)고 표현한 바 있다.

정당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KSB 패널조사 1차와 6차 응답자의 지지정당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전체 응답자 1,174명 중에서 6차에 지지정당을 바꾼 응답자는 372명(31.7%)였다.¹³⁾ 372명 중 30.1%가 민주당으로 이동했으며, 다음으로 24.2%가 기타정당, 22.6%가 미래통합당, 15.32%가 무당파로 이탈했다. 1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 비율은 41.31%였지만 6차 조사에서 47.8%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오면서 무당파에 머무르던 부동층이 지지할 정당을 찾아 이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지지율도 20.92%에서 25.13%까지 상승했다.

<표 4> 코로나 전·후 지지 정당 이동

(단위: 명, %)

		지지정당(1차)				
		무당파	더민주	통합당	정의당	기타
지지 정당 (6차)	무당파	93 (36.19)	24 (4.68)	8 (3.31)	3 (4)	22 (25.29)
	더민주	64 (24.9)	449 (87.52)	9 (3.72)	25 (33.33)	16 (18.39)
	통합당	50 (19.46)	7 (1.36)	209 (86.36)	2 (2.67)	25 (28.74)
	정의당	14 (5.45)	9 (1.75)	3 (1.24)	41 (54.67)	1 (1.15)
	기타	36 (14.01)	24 (4.68)	13 (5.37)	4 (5.33)	23 (26.44)
	전체	257 (100)	513 (100)	242 (100)	75 (100)	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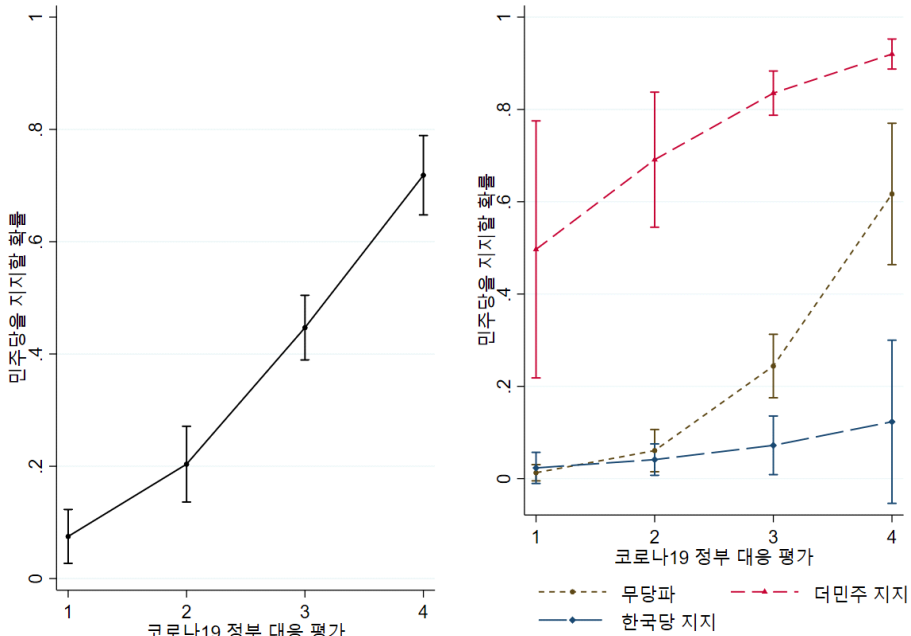
무당파 혹은 다른 정당에서 새로 민주당으로 이동한 응답자들의 정부 대응 평가(5차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 108명 중 101명(93.5%)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개월 사이 새로 유입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것이 정당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정당 지지 기본모형]과 [정당 지지 상호작용 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그림 1>은 회귀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3) 1차 조사에서 기타 정당이라고 응답한 87명은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의 정당 지지자를 포함한 다. 이들 중 1차와 6차에도 정당 지지를 변경하지 않은 응답자는 10명이었다.

<표 5> 정당 지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지지정당(1차 조사)	기본 모형	상호작용항 모형
무당파	-2.59 ^{***} (0.24)	-5.12 ^{***} (1.29)
한국당 지지	-3.84 ^{***} (0.45)	-3.50 [*] (1.42)
정의당 지지	-3.03 ^{***} (0.33)	-3.65 (1.95)
기타정당 지지	-2.90 ^{***} (0.39)	-7.86 ^{**} (2.47)
코로나19 대응평가(5차 조사)	1.15 ^{***} (0.16)	0.82 ^{***} (0.23)
무당파*코로나19 대응평가		0.79 [*] (0.40)
한국당*코로나19 대응평가		-0.23 (0.52)
정의당*코로나19 대응평가		0.19 (0.54)
기타정당*코로나19 대응평가		1.55 [*] (0.75)
코로나19 관심도	0.16 (0.16)	0.15 (0.17)
이념성향	-0.20 ^{***} (0.06)	-0.21 ^{***} (0.06)
학력	0.10 (0.25)	0.16 (0.25)
강원/제주	0.14 (0.42)	0.13 (0.43)
충청/대전	0.47 (0.35)	0.46 (0.35)
전라/광주	-0.43 (0.33)	-0.48 (0.33)
경상/대구/부산/울산	-0.32 (0.25)	-0.37 (0.25)
가구소득	0.01 (0.09)	0.02 (0.09)
성별	-0.18 (0.20)	-0.19 (0.21)
연령	0.00 (0.01)	0.00 (0.01)
상수항	-1.69 (1.01)	-0.71 (1.25)
Observations	998	998
Pseudo R^2	0.524	0.531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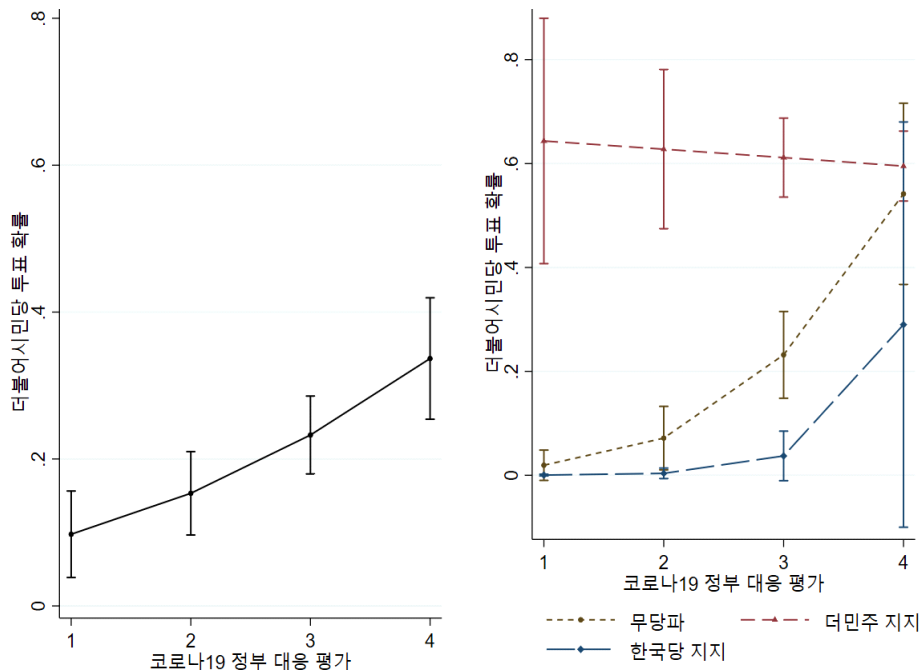
<그림 1> 민주당 지지 예측 확률

<그림 1>의 왼쪽 그래프는 [기본 모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 모형] 분석의 결과 코로나19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1.15, p=0.000$). 다른 변수들의 값을 평균에 고정하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매우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을 때 민주당 지지 예측확률은 0.07이었으며,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을 때의 예측확률은 0.72였다. 가설1이 지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는 [상호작용항 모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호작용항 모형] 분석의 결과 정당 지지에 따라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 코로나19 대응평가가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울기가 평행에 가깝고 4점일 때의 예측확률 신뢰구간이 1점일 때의 신뢰구간을 포함하고 있음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여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무당파보다는 그 정도가 완만했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다른 변수들을 평균에 고정했을 때, 매우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때의 민주당 지지 예측확률은 0에 가까웠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때 민주당 지지 예측확률은 0.62까지 올랐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표 6>, <그림 2>와 같다. <표 6>은 더불어민주당 투표 여부에 코로나19 대응평가가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2>는 <표 6>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변수들을 평균에 고정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평가가 점수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투표의향 예측확률이다. 왼쪽 그래프는 기본 모형의 분석결과이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예측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정당 지지자별로 코로나19 대응평가가 더불어민주당 투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때의 정당 지지는 코로나19 이전 시점에 측정된 것이다.



<그림 2> 코로나19 정부 대응평가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투표의향 예측확률

<표 6> 정당투표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 모형	상호작용항 모형
지지정당(1차조사)		
무당파	-1.22*** (0.25)	-5.96*** (1.33)
한국당 지지	-3.59*** (0.63)	-10.99** (3.44)
정의당 지지	-2.37*** (0.37)	-4.20 (2.22)
기타정당 지지	-1.94*** (0.47)	-6.08** (2.29)
코로나19 대응평가(5차 조사)	0.52*** (0.14)	-0.07 (0.20)
무당파*코로나19 대응평가		1.43*** (0.39)
한국당*코로나19 대응평가		2.43* (1.03)
정의당*코로나19 대응평가		0.51 (0.61)
기타정당*코로나19 대응평가		1.24 (0.68)
코로나19 관심도	0.33* (0.15)	0.35* (0.16)
이념성향	-0.11* (0.05)	-0.12** (0.05)
학력	-0.34 (0.22)	-0.30 (0.22)
강원/제주	0.67 (0.42)	0.54 (0.43)
충청/대전	0.23 (0.31)	0.26 (0.31)
전라/광주	0.30 (0.28)	0.30 (0.28)
경상/대구/부산/울산	-0.10 (0.24)	-0.14 (0.24)
가구소득	-0.09 (0.08)	-0.07 (0.08)
성별	-0.52** (0.18)	-0.47* (0.18)
연령	-0.03*** (0.01)	-0.03** (0.01)
상수항	0.246 (1.02)	2.16 (1.15)
Observations	848	848
Pseudo R^2	0.326	0.346

*** $p < 0.001$, ** $p < 0.01$, * $p < 0.05$.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코로나19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예측확률이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예측확률이 매우 낮았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정부 대응평가를 매우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비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유의미하게 더불어민주당 투표 예측확률이 상승했다. 즉,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에만 더불어민주당 투표 의향에 코로나19 평가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이슈 투표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20년 총선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슈는 선거에서 매우 현저한 이슈였으며 후보들은 공약집과 선거공보, 선거유세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0년 총선에서 코로나19 이슈는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였으며, 다수의 유권자가 여당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 이슈 선점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실제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당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당일체감과 정부평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분석했을 때, 정부평가가 정당 지지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평가가 투표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만약 여당이 아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재난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가 분석에 함께 고려된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투표에서 코로나19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것이 비례대표 투표 의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슈가 정당 지지 변경과 비례대표 투표의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정당이 특정 이슈에 대해 좋은 성과를 보이면 정당은 해당 이슈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민주당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이 정당 지지와 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앞으로 재난 이슈가 선거에서 부각되었을 때 민주당은 다른 정당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슈 경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슈 소유의 관점에서 민주당의 재난 이슈 해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이 재난 이슈 해결에 대해 민주당을 신뢰하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단기적 이슈 선점은 장기적 이슈 소유로 자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 총선에서 중요했던 코로나19의 영향을 이슈 투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노력이 앞으로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재난 이슈가 한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앞으로 재난 이슈가 선거에서 차지할 공간과 경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당 지지는 장기적 이슈 소유 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12.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대 총선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11(2): 67-94.
- 강우진. 2013.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5): 213-233.
- 강원택. 2003. 《한국의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나남.
- 길정아. 2020. “정당 간 갈등은 누구의 탓일까: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 사례와 당파적 책임 귀속.” 《한국정당학회보》 19(3): 5-37.
- 길정아·하상웅.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 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56: 46-78.

- 김성연. 2015.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 2012년 대통령 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15(3): 459-491.
- 류재성. 2012.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한국정치연구》 21(2): 53-86.
-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4): 327-349.
- 문우진. 2012.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누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바꾸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6(1): 175-201.
- 박원호. 2012. “정당일체감의 재구성.”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나남, pp. 51-74.
- 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5): 119-142.
- 송진미·박원호. 2016. “이슈 경쟁과 합의 이슈모델: 2014년 서울시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5(1): 29-62.
- 오현주·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 “정당 호감도와 회고적 평가: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3): 69-97.
- 우효평. 2017. 통일이슈와 정치 갈등의 변화: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후마니타스.
- 이내영·정한울. 2007. “이슈와 한국 정당 지지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41(1): 31-55.
- 이현우. 2014. “2014년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친 영향: 정부책임과 정당대응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9(1): 247-268.
- 장승진. 2013. “경제민주화와 제18대 대선: 쟁점 투표(Issue Voting)와 정치 지식(Political Knowledge).” 《한국정당학회보》 12(1): 87-112.
- 장승진.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 25-52.
- 정동준. 2016.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인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5): 131-161.
- 정한울. 2013. “안보 이슈는 이념적 쟁점인가?” 《EAI 오피니언 리뷰》 2013-03: 1-19.
- 조성대. 2012.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후보자 자질, 자질 침범 가설과 미국 대통령선거, 1984? 2008.” 《21세기정치학회보》 22(1): 161-183.
- 조진만. 2014.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4(3): 113-134.
- Tomz, Michael and Robert P. Van Houweling. 2008. “Candidate Positioning and Voter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3): 303-318.
-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17.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 Adams, James F., Samuel Merrill III and Bernard Grofman. 2005. *A Uni-fied Theory of Party Competi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Integrating Spatial and Behavioral Fac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solabehere, Stephen, and Shanto Iyengar. 1994. "Riding the Wave and Claiming Ownership Over Issues: The Joint Effects of Advertising and News Coverage in Campaigns." *Public Opinion Quarterly* 58(3): 335-357.
- B'elanger, E'ric and Bonnie M. Meguid. "Issue Salience, Issue Ownership, and Issue-based Vote Choice." *Electoral Studies* 27(3): 477-491.
- Bartels, Larry M. 2014. "Remembering to Forget: A Note on the Duration of Campaign Advertising Effects" *Political Communication* 31(4): 532-544.
- Bechtel, Michael M. and Jens Hainmueller. 2011. "How Lasting is Voter Gratitude? An Analysis of the Short-and Long-term Electoral Returns to Beneficial Poli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4): 852-868.
- Bellucci, Paolo. 2006. "Tracing the Cognitive and Affective Roots of 'Party Competence': Italy and Britain, 2001" *Electoral Studies* 25(3): 548-569.
- Bodet, Marc Andre, Melanee Thomas, and Charles Tessier. 2016. "Come Hell or High Water: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a Natural Disaster on a Local Election." *Electoral Studies* 43: 85-94.
- Bol, D., M. Giani, A. Blais, and P.J. Loewen. 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450-458.
- Brown, Adam R. 2010. "Are Governors Responsible for the State Economy? Partisanship, Blame, and Divided Federalism." *The Journal of Politics* 72(3): 605-615.
- Budge, Ian and Farlie, Dennis. 1983a. *Explaining and Predicting Elections: Issue Effects and Party Strategies in Twenty-three Democracies*, Taylor & Francis.
- Budge, Ian and Farlie, Dennis. 1983b. "Party Competition: Selective Emphasis or Direct Confrontation?: An Alternative View with Data." In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Continuity and Change*, Beverly Hills, CA: Sage, 267-305.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80.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en, J. 2013. "Voter Partisanship and the Effect of Distributive Spend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1): 200-217

- Clark, Michael. 2009. "Valence and Electoral Outcomes in Western Europe, 1976-1998." *Electoral Studies* 28(1): 111-122.
- Coppock, Alexander, Seth J. Hill, and Lynn Vavreck. 2019. "Persuasive Effects of Presidential Campaign Advertising: Results of 53 Real-time Experiments in 2016."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2019 APSA.
- Damore, David F. 2004. "The Dynamics of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Campaig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7(3): 391-397.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박상훈·이기훈·김은덕 옮김, 후마니타스, 2013], New York: Harper.
- Egan, Patrick J. 2013. *Partisan Priorities: How Issue Ownership Drives and Distorts American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elow, James M and Melvin J. Hinich. 1981. "A New Approach to Voter Uncertainty in the Downsian Spatial Mode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3): 483-493.
- Enelow, James M and Melvin J. Hinich. 1984.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 Introduction*. CUP Archive.
- Gadarian, Shana Kushner, Sara Wallace Goodman, and Thomas B. Pepinsky. 2020. *Partisan Endorsement Experiments Do Not Affect Mass Opinion on COVID-19 (April 13, 2020)*.
- Green, Jane and Sara B. Hobolt. 2008. "Owning the Issue Agenda: Party Strategies and Vote Choices in British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7(3): 460-476.
- Green-Pedersen, Christoffer. 2007. "The Growing Importance of Issue Competition: The Changing Nature of Party Competition in Western Europe." *Political studies* 55(3): 607-628.
- Grossman, Guy, Soojong Kim, Jonah Rexer, and Harsha Thirumurthy. 2020. *Political Partisanship Influences Behavioral Responses to Governors' Recommendations for COVID-19 Prevention in the United States(April 22, 2020)*.
- Harell, Allison. 2020. "How Canada's Pandemic Is Shifting Political Views. Report for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 Healy, Andrew, and Neil Malhotra. "Myopic Voters and Natural Disaster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3):387-406.
- Hill, Seth J., James Lo, Lynn Vavreck, and John Zaller. 2013. "How Quickly We Forget: The Duration of Persuasion Effects from Mass Communic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0(4): 521-547.
- Holian, David B. 2004. "He's Stealing My Issues! Clinton's Crime Rhetoric and the

- Dynamics of Issue Ownership.” *Political Behavior* 26(2): 95-124.
- Jessee, Stephen A. 2010. “Partisan Bias, Political Information and Spatial Voting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2(2): 327- 340.
- Kalla, Joshua L. and E. David Broockman. 2018. “The Minimal Persuasive Effects of Campaign Contact in General Elections: Evidence from 49 Field Experim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2(1): 148-166.
- Kuechler, Manfred. 1991. “Issues and Voting in the European Elections 1989.”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9(1): 81-103.
- Lacy, Dean and Philip Paolino. 2010. “Testing Proximity Versus Directional Voting Using Experiments.” *Electoral Studies* 29(3): 460-471.
- Macdonald, Stuart Elaine, Ola Listhaug, and George Rabinowitz. 1991. “Issues and Party Support in Multiparty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4): 1107-1131.
- Malhotra, Neil and Alexander G. Kuo. 2008. “Attributing Blame: The Public’s Response to Hurricane Katrina.” *The Journal of Politics* 70(1): 120-135.
- Marsh, Michael, and James Tilley. 2010. “The Attribution of Credit and Blame to Governments and Its Impact on Vote Cho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 115-134.
- Matthews, Steven A. 1979. “A Simple Direction Model of Electoral Competition.” *Public Choice* 34(2): 141-156.
- Merkley, Eric, Aengus Bridgman, Peter John Loewen, Taylor Owen, Derek Ruths, and Oleg Zhilin. 2020. “A Rare Moment of Cross-Partisan Consensus: Elite and Publ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311-18.
- Miller, Warren E. 1992. “Generational Changes and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14(3): 333-352.
- Petrocik, John R. 1996.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Elections, with A 1980 Case Stud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25-850.
- Petrocik, John R. 2003. “Issue Ownership and Presidential Campaigning, 1952-2000.”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8(4): 599-626.
-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laine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 93-121.
- Stokes, Donald E.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2): 368-377.
- Stokes, Donald E. 1992. “Valence Politics.” in *Electoral Politics*, Clarendon Press,

- Oxford, 141-162.
- Stubager, Rune, and Rune Slothuus. "What are the Sources of Political Parties' Issue Ownership? Testing Four Explanations at the Individual Level." *Political Behavior* 35(3): 567-588.
- Stubager, Rune. 2018. "What is Issue Ownership and How Should We Measure It?" *Political Behavior* 40(2): 345-370.
- van der Brug, Wouter. 2004. "Issue Ownership and Party Choice." *Electoral Studies* 23(2): 209-233.
- Wagner, Markus, and Eva Zeglovits. 2014. "Survey Questions about Party Competence: Insights from Cognitive Interviews." *Electoral Studies* 34: 280- 290.
- Walgrave, Stefaan, and Knut De Swert. 2007. "Where Does Issue Ownership Come From? From the Party or From the Media? Issue-party Identifications in Belgium, 1991-2005."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 Politics* 12(1): 37-67.
- Westholm, Anders. 2001. "On the Return of Epicycles: Some Crossroads in Spatial Modeling Revisited." *The Journal of Politics* 63(2): 436-481

<접수 2020.11.01; 수정 2020.11.19; 게재확정 2020.11.25>

Where Voters' Party Identification Moved: Owning the COVID-19 Issue in the 2020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Jin Mi Song

Using panel data from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is paper examines how this disaster moved voters' partisanship and affected their willingness to vote in the 2020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The COVID-19 issue was pertinent to the election: Many voters responded in polls that they would consider the issue when they voted. This paper used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parties' pledges regarding COVID-19 and the voters' political attitudes toward the disease and their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quarantine capacity regarding it.

The more positively voters evaluat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more willing they were to vote in the election for the Citizens' Party. However, this tendency was conditioned by party identification as measured before the COVID-19 outbreak. The results show that independent voters were most affected by the government's evaluation of COVID-19, whereas partisan voters were relatively less influenced by i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political attitudes of Korean vot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arty support and voting intentions between December, just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March-April, which was the first election period after the outbreak began.

Key words: COVID-19, Korean election, panel data, issue ownership, valence issue